

연구소는 '과잉생산, 과로사회를 멈추고 기후정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927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건강, 존엄한 삶보다는 자본의 이윤을 위한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일하는 사람을 과로에, 그리고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함께 멈추자고 모였습니다. 이윤보다 모두의 삶과 안전이 더 중요한 기후정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울 광화문으로, 부산 서면으로,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을 연결하며 평등 세상을 향한 힘찬 행진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10월호 일터는 과연 몇 호일까요?

2003년 8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는 창간 준비 1호를 발행합니다. 회원과 함께 기획하고 원고를 작성하면서 함께 만들어왔던 '일터'는, 전국 유일한 노동안전보건 정기간행지로서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함께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선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구독자를 조직하면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일터를 만드는 여러 회원과 활동가들이 **일터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드리는 두 가지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2026년 1월부터 연간 정기구독료를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할 계획입니다. 창간 준비 1호의 정기구독료가 3만 원이었다가, 2013년 7월 4만 원으로 처음 인상하였고, 그 이후 12년 동안 구독료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260호 일터)부터 정기구독료가 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니 잘 기억해주시요.

둘째, 지인에게 일터를 추천하고 선물해 주십시오. **1+1 이벤트**로 함께 구독하시면 두 분 모두에게 연간 구독료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이번 10월부터 개인 또는 단체, 노동조합 등 일터 구독을 추가해주시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터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구소의 두 가지 요청사항에 꼭 함께해 주십시오.**